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4.12.

CEPA Insight

- 프라보워 대통령 “2025년 주단위 최저임금(UMP) 6.5% 인상” 발표
- 인도네시아, 한국산 라면 EO 성적서 요구 규제 해제
- 2024년 3분기 인니 국제수지 흑자... “대외 안정성의 견고한 발판”
- 2025년 부가가치세 12% 인상, 경제와 서민에게 미칠 영향 분석
-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자카르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

▣ 프라보워 대통령 “2025년 주단위 최저임금(UMP) 6.5% 인상” 발표

자카르타 UMP 5,396,760 루피아

중부자와 UMP 2,169,348 루피아

서부자와 UMP 2,191,232 루피아

반 뜬 주 UMP 2,905,119 루피아

동부자와 UMP 2,305,984 루피아

- 2025년 주단위 최저임금(UMP)은 2024년 대비 평균 6.5% 인상될 예정이다. 11월 29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인상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부와 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이는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유지를 목표로 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각 지방 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노동부 장관령을 통해 구체적인 규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 2025년 UMP 인상에 따라, 자카르타의 UMP는 5,396,760루피아로 예상되며, 중부자와, 서부자와 등 다른 지역도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부가세 인상과 함께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2025년 UMP에 관한 장관령을 1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 11. 30.)

■ 인도네시아, 한국산 라면 EO 성적서 요구 규제 해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일,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요구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와 살균제로 사용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잔류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부터 한국산 라면에서 EO로 인한 비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자, 수출 시마다 EO 시험·검사성적서를 요구해왔다.
- 식약처는 이 조치의 해제를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한국산 즉석면류는 추가 증명서 제출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 12. 3.)

■ 2024년 3분기 인니 국제수지 흑자... “대외 안정성의 견고한 발판”

- 2024년 3분기 인도네시아의 국제수지는 5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대외 안정성을 강화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22억 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자본·금융수지 흑자가 증가하면서 외환보유고는 1,499억 달러로 상승했다. 이는 수입액과 대외부채 상환액을 충분히 커버하는 수준으로, 경제 안정성에 기여했다. 비석유가스 수출 증가와 같은 경제 활동의 활발함도 국제수지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 인도네시아의 자본·금융수지는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하며 투자자 신뢰를 증진시켰다. 제조업, 보건서비스, 운송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확대되었고, 포트폴리오 투자도 증가했다. 2024년 전체 경상수지는 낮은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자본·금융수지의 흑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대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이데일리, 2024. 11. 24.)

■ 2025년 부가가치세(PPN) 12% 인상, 경제와 서민에게 미칠 영향 분석

- 2025년 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가가치세(PPN)를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세제 구조 개선과 국세 수입 증대를 목표로 하며, 특히 개발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상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학자들은 PPN 인상이 물가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기본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계획이다.
- 기업 측에서는 세율 인상이 제조원가와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입 증대로 개발사업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 여력을 높여 공공 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균형 있는 정책 실행과 산업계 및 국민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 11. 29.)

■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자카르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

중소기업 성장 동력 확보 위한 전략적 원스톱 지원센터로 활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은 2024년 12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개소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자카르타 GBC는 963㎡ 규모의 공간에 15개의 독립실, 20석의 공유 오피스, 회의 공간 등을 갖추고, 법률과 회계 자문 및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화를 돕는다. SCBD 타운에 위치해 바이어 미팅과 네트워킹에도 유리한 점이 강조된다.
- 이번 GBC 설립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현지화 지원 필요성을 충족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풍부한 인구를 자랑하지만, 복잡한 규제와 문화적 차이로 중소기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GBC는 현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도네시아 대학교와 제일기획 인도네시아 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4. 12. 3.)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연합뉴스)</p>	 <p>(출처 : 한인포스트)</p>
<p><프라보워 대통령 "2025년 주단위 최저임금(UMP) 6.5% 인상" 발표></p>	<p><식품의약품안전처></p>	<p><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024년 3분기 인니 국제수지 흑자 발표></p>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p>
<p><스리 멀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p>	<p><자카르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소 테이프 커팅></p>

■ 시사점

- 2025년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평균 6.5% 인상하고, 부가가치세(PPN)는 11%에서 12%로 인상할 예정으로, 이는 노동자의 구매력 향상과 국가 재정 강화를 목표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부가세 인상은 국가 개발 자금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KOSME)은 자카르타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개소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현지화 과정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